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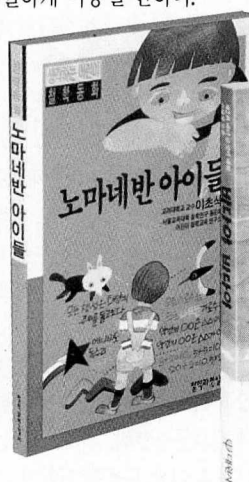
어린이책 들춰보기

노마네반 아이들

어린이철학교육연구소 엮음
철학과현실사 / A5신 / 262면 / 3000원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대화의 방법을 익히나가도록 철학의 기초지식을 동화의 형식 속에 담아 어린이는 물론 부모나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의 철학교육에 참고할 수 있도록 꾸민 교재.

미국에서 국민학교 고학년 철학교재로 이용되고 있는 「Harry Stottlemeier's」(1977)의 내용을 근간으로 삼아 교사출신의 선생님들이 현장경험을 살려 우리 어린이들에 알맞게 재구성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한 철학적 사유는 어린이시절부터의 단계적 교육이 필수적인만큼 적절하게 이용될 만하다.



바다야 바다야

임지현 외 지음
대원사 / A5신 / 296면 / 3000원

동원산업과 서울YMCA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2회 바다 글짓기대회' 수상작 모음. 최우수상을 받은 광주 동신중학교 임지현 학생의 '아버지의 바다'를 비롯해 바다를 소재로 한 모두 177편의 시와 산문이 실려 있다.

산등성 넘어 / 해님은 / 집으로 가고 //
칭얼대는 파도를 / 바람이 사랑사랑 /
잠재우고 있다 // 갯벌엔 / 기일게 /
꽃게 발자국 // 어둠이 / 할금할금 /
뒤를 밟고 있다(「저녁바닷가」 전문)

바다에 관한 어린이들의 소중한 기억과 바다를 이룬 어린이들의 땀과 생활이 진실하게 그려져 있어 감동을 준다.

가장 소중한 성탄선물

리아 가리니 알리만디 지음 / 노재운 옮김
서광사 / A5신 / 120면 / 2000원

참다운 성탄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아름다운 14편의 이야기 모음. 우체국에서 하느님께 띄운 어린이들의 편지문치를 훑친 브라운씨. 장난스럽게 시작한 이 일이, 산타가 되어 한 집씩 방문하는 동안 자신도 생각지 못한 새 세계에 눈뜨게 한다는 「사랑의 전화」를 비롯해 「슬픈 할아버지가 경험한 작은 천국」 「11월의 성탄축제」 등의 짙막한 동화에서 값비싼 선물이나 호화로운 축제를 벌여 웃고노는 것만이 성탄의 즐거움은 아니라는 소중한 일깨움을 준다. 사랑과 지혜가 담긴 동화시리즈 아홉권째.



하느님의 눈물

권정생 지음 / 신혜원 그림
산하 / A5신 / 240면 / 3000원

동화속에 울곤은 역사의식과 삶의 진실들을 담아왔던 아동문학가 권정생씨가 저학년 어린이들을 위해 쓴 동화집. 인간중심의 세계에서 늘상 약자인 수밖에 없는 동물이나 나무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표제동화 「하느님의 눈물」을 비롯해 「아기 소나무」 「학교놀이」 「떡반죽 그릇 속의 개구리」 등 모두 17편의 동화가 실려 있다.

이웃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둥글둥글한 마음의 어린이로 자라주었으면 하는 작가의 간절한 바람들이 편편에 담겨 있다.

삼국지

나관중 지음 / 황명희 그림
지경사 / A5신 / 110면 / 2500원

명나라 나관중이 쓴 중국의 대표적 고전 「삼국지 연의」를 원작의 내용과 줄기를 최대한 살리면서 국민학교 저학년의 수준에 맞게 꾸몄다.

호탕한 인물 장비, 의리의 사나이 관우, 지략꾼 제갈량, 그리고 이들의 도움으로 촉나라의 황제가 된 유비, 이밖에도 조조, 동탁, 여포, 손권 등 많은 영웅호걸들이 등장, 혼란한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과정을 흥미롭게 펼쳐보인다. 다양한 성격의 다양한 인물들이 빚어내는 지혜와 용기가 어린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가운데 재미있게 그린 일러스트가 웃음을 자아낸다.



착한 악마

피에르 그리파리 지음 / 손경애 옮김
대원사 / A5신 / 160면 / 2500원

고소한 튀김이 되고 싶었던 감자가 있었다. 출출한 어린이들의 오후간식이 되어 하얀 식탁위에 오르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런데 그만 주인집 아들의 장난에 의해 감자의 꿈은 무참히 깨지고 만다. 칼로 눈과 코와 입이 만들어진 채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이다. 감자는 다행히 그곳에서 '기타'라는 친구를 만난다.

말하는 감자의 엉뚱한 일생을 그린 '감자의 사랑'을 비롯해 6편의 동화가 실려 있다. 느닷없는 주인공을 내세워 기발하게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어 어린이들이 유연한 사고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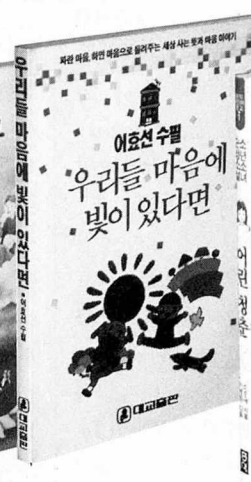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어효선 지음
대교 / A5신 / 208면 / 2500원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 여름엔 여름엔 파랗 거예요 / 산도 들도 나무도 파란외므로 / 파랗게 파랗게 덮인 속에서 / 파아란 하늘 보며 자라니까요”

어린이들이 즐겨부르는 동요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의 작사자이고 아동문학가인 작가가 지난 40여년 동안 써왔던 수필들을 모아 묶은 것. 한 나라의 앞날은 그 나라 어린이들이 옹고 빠르게 자랄 때에야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작가의 신념이 글마다 배어 있어 어린이들에게 참담게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일깨우고 있다.



어린 청춘

소중애 지음 / 민병원 그림
홍익 / A5신 / 188면 / 2900원

영친시장의 알아주는 갑부아들 최영걸은 아버지가 비록 술집을 경영하고 있지만 떼떽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엄마가 어릴 적에 집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아버지랑 친구처럼 지내는 잉걸이에게 어느날 갑자기 불행이 닥친다.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진 것이다. 그런 잉걸이 곁에 가난하지만 착한 친구 상희가 있다. 상희 역시 홀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살고 있지만 이들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려 한다. 곳곳하고 밝게 역경을 헤쳐가는 두 어린이의 모습은 주변사람들에게 무한한 용기를 불러일으킨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정구창 옮김 / 김광용 그림
교과사 / A5신 / 198면 / 2500원

책을 읽고 있는 언니 곁에 기대고 있다 그만 깊은 잠에 빠져든 앨리스가 꿈속에서 겪게 되는 기이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부모님이 어렸을 적에도 꼭같이 읽고 마음껏 상상의 나라를 뒀을 만큼 오래된 세계어린이명작 중의 하나.

세하얀 토끼의 뒷뿔무늬를 쫓아 동굴속으로 들어간 앨리스는 그곳에 놓여진 이상한 약을 먹고 개구리처럼 작아지기도 하고 기린처럼 커지기도 하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된다. 자신이 거인이었을 적에 흘린 눈물바다에 등둥 떠나기도 하고, 토끼에게서 꾸지람을 듣기도 하면서 별의별 경험들을 하게 된다.

내 친구 깨치 2

주경희 지음 / 김숙 그림
서강 / A5신 / 170면 / 2500원

찬돌이의 친구 깨치는 장난꾸러기 아기 도깨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골려주고 싶어 안달이다. 호기심도 많아 음악선생님 방에 숨어들어 빨간 립스틱도 발라보고 이것저것 어질러두기 일쑤다. 찬돌이네 학교에선 요즘 비행기접기가 대유행이다. 소원을 적은 비행기를 4백개 만들어 날리면 그 소원이 이뤄진다는 소문과 함께, 정의로운 소년 찬돌이는 우연히 친구 지훈이의 안타까운 비밀을 알게 되는데……. 깨치, 찬돌, 찬미, 민희 등 귀여운 친구들이 등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어린이 TV드라마를 소설화한 것.

친구여 안녕

심경석 지음 / 임성은 그림
지경사 / A5신 / 216면 / 3000원

현재 국민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재직중인 작가가 교직생활 중에 실제 겪었던 이야기로, 국민학교 졸업을 눈앞에 두고 죽어갔던 한 개구쟁이 어린이의 실화.

어머니의 재혼으로 친척집에 혼자 남겨진 윤호. 자신의 몸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서부터 친구들에게 더욱 정을 쏟는다. 고아원에 다니는 상일의 좋은 벗이 되어주고 신문배달 아저씨를 남몰래 도운다. 그러나 불과 얼마후 어린이에게겐 흔치않은 간암으로 윤호는 죽고 말지만 그 아이가 친구들에게 남긴 헌신적 사랑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감동으로 남는다.

흥미있는 생활과학

유한준 엮음
대림 / A5신 / 286면 / 3000원

얼음이 물위에 뜨는 까닭은 무엇인가? 바닷물은 대체에너지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 만들어졌고 각종 색깔은 어떻게 넣을까? 참새들은 전기줄에 올라앉아도 전기가 통하지 않는데, 그건 왜 그럴까? 등등 이밖에도 유심히 관찰해보면 생활 주변에는 이유도 모른 채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과학명명의 혜택들이 있다. 과학을 모르고선 요즘 세상을 살아내기 힘든만큼 과학적 기초상식도 필수에 속한다. 어렵고 딱딱하게 여겨져왔던 과학의 제반이론들을 생활에 밀접한 것들을 중심으로 국민학교 고학년 수준에 맞게 꾸몄다.



숙제주식회사

동화문화연구회 엮음 / 신영 그림
동화문화사 / A5신 / 172면 / 2800원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숙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숙제에 대한 어린이들의 중압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말처럼,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해갈 수 없이 어렵고 많은 양의 숙제에 시달리고 있는 이 책의 주인공들은 어느날 기발한 착상을 해낸다. 숙제를 대신 맡아 해주는 ‘숙제주식회사’를 창립한 것. 예를들어 삼국시대의 교통지도를 그려오라는 숙제가 나왔을 경우 하기 싫은 친구들의 주문을 받아 지도를 그려 배달해주는 일을 하는 곳이다. 장난스런 듯한 설정이지만 현교육의 문제점을 하나씩 지적해내는 목소리가 맑다.

대추나무집 쌍둥이

이준연 지음
윤성 / A5신 / 222면 / 2500원

5학년짜리 쌍둥이 형제 금돌이와 은돌이가 아웅다웅 다투면서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유쾌하게 그린 장편동화. 남의 흉내를 잘내는 금돌이는 신학기 첫날 교단에 나가 새로 전임은 담임선생님의 흉내를 내다가 그만 들켜버린다. 그러나 뭐라 하기는커녕 대신 인삿말을 해줘 고맙다는 담임선생님의 반응에 위기를 모면한 금돌이는 점점 새 선생님에게 호감을 갖게 된다. 학교가기 싫은 날의 걸음걸이를 “늙은 영감 막내딸 집을 찾아가듯 느릿느릿 걷는다”고 표현한 것과 금돌이를 가리켜 “신들린 무당할매처럼 선생님연극을 하더라”는 은돌이의 비꼬 등 골잘 등장하는 이같은 비유가 재미있다.

사촌남매들

이관 옮김 / 권아현 그림
교과사 / A5신 / 188면 / 2500원

로즈는 활짝 핀 장미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소녀. 부자집 귀염둥이로 부러울 것 하나없이 자라지만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고, 최근엔 아버지까지 세상을 뜨는 바람에 삼촌 알렉을 후견인으로 하여 친척집에 맡겨진다. 찰리, 스티브, 마크, 조디, 윌, 제미, 아지는 시름에 빠진 로즈에게 웃음을 찾아주기 위해 날마다 재미난 ‘거리’를 만드는 개구쟁이 사촌형제들. 로즈를 사교계의 여왕으로 키우려는 아주머니들과 활달하고 똑똑한 아이로 키우려는 알렉아저씨의 바람이 상치되는 가운데, 로즈는 응석받이에서 다감하고 사려깊은 아이로 변모해간다.

어른이 되면 무엇이 될까

안토니오 그람시 지음 / 임미진 옮김
공동체 / A5신 / 188면 / 3000원

이탈리아의 사회주의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옥중에서 두 아들에게 띄운 사랑의 편지 모음. 장남 델리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차남 질리아노, 그리고 아내 줄리아와 처형 타냐에게 띄운 편지에는 자신의 어린시절이야기를 비롯해 독방에 날아들어온 참새이야기, 그리고 커가는 아이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염려와 조언 등이 진솔하게 적혀 있다. 특히 자신이 감명깊게 읽었던 푸시킨의 「황금 닭」 키플링의 「사향고양이의 모험」 디킨스의 「도깨비는 왜 무덤지기를 데리고 갔나」 등의 동화도 편지와 함께 실려 있다.